

# 체력 굳건한 미 경기 속 반도체 급등 vs 빅테크 비용부담 지수 혼조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\_yunjeong.kim@ls-sec.co.kr  
RA 성현영 \_hyseong@ls-sec.co.kr

## 마이크론 실적 이후, 반도체 강세 vs 빅테크 약세

- 미 증시는 DOW +0.14%, S&P500 -0.01%, NASDAQ -0.46% 혼조. 산업재, 헬스케어, 소재 강세, 임의소비재, 통신서비스, 필수소비재 약세
-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3.6% 강세. 반면 반도체 칩 가격 부담 부각되며 하이퍼스케일러 단 대형기술투자 약세 두드러지며 나스닥 등 지수 부담
- GDP 성장률 등 견조한 경제지표에 경기선행적 성격의 캐터필러(+6.3%) 등 강세

## PCE 물가, 3년래 최고치긴 하나 시장 예상 부합

- 5월 PCE 가격지수 YoY +4.1% 전월비↑·컨센 부합, MoM +0.4% 전월과 동일·컨센 하회. 2%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레벨이나, 월가는 해당 지표가 종전 MOU 체결 이전 집계치로 유가 하락을 반영하기 이전 지표라는 점에 주목. 에너지·식품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YoY +3.4% 전월비↑·컨센 부합, MoM +0.3% 전월·컨센 부합
- 굿스비 총재는 근원 PCE 물가에 대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 진단. 앞서 우려의견을 표했던 서비스물가에 대해서는 일부 희망의 조짐이 있었다고 언급. 또한 AI 등 기술 발전 기대가 인플레이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 경계

## GDP 및 소비·자본재주문 호조, 실물경기 펀더멘털 견고

- 1Q26 GDP 성장률 확정치 +2.1% 잠정치 대비 +0.5%p ↑
- 5월 PCE 민간소비지출 명목증가율 MoM +0.7%, 물가를 반영한 실질증가율 MoM +0.3% 모두 전월비↑. 실질증가율 기준 상품 +0.5%, 서비스 +0.2%
- 5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 핵심자본재 주문 MoM +1.6%(전월 -0.7%). 증가분 일부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등 물가 영향으로 분석. 핵심자본재 출하량 +0.3%. 5월 내구재주문 MoM -4.5%. 전월(+8.5%) 급증에 따른 조정
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.5만건 전주·컨센 하회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AAPL	애플	-6.2%	메모리 및 스토리지 부품 평가 상승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의 출고가 인상 발표. 이후 주가 급락하며 '25년 4월 이후 최대 하락폭. 메모리 공급난은 마이크론(+15.8%)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사들의 GPM 개선에는 기여했으나, 높아진 칩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양상.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다수의 제품에 대해 가격 인상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평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둠. 마이크로소프트(-3.5%)도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 세계적으로 Xbox콘솔 가격을 인상
IBM	IBM	-1.8%	0.7nm 초정밀공정 기술 공개. 0.7nm 나노스택은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칩당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1,000억 개로 두 배 늘리고, 성능을 최대 50% 향상시키거나 전력 소비를 70% 절감 가능한 기술. IBM측은 해당 기술은 성능을 향상하는 동시에 전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AI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밝힘. '30년경 기술 상용화가 예상
AMAT	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	+13.4%	AI 반도체용 DRAM 및 첨단패키징 가속화를 위한 최첨단 3D 아키텍처 및 HBM, 첨단 패키징 공정 수율 향상에 최적화된 신규 장비 포트폴리오를 대거 공개하며 주가 급등
BB	블랙베리	+20.0%	실적발표, 어닝서프라이즈. F27 연간 가이던스 상향 소식에 주가 폭등. 자율주행 및 피지컬 AI 차량의 보안 소프트웨어 레이어 역할을 하는 'QNX' 매출이 성장 견인
NKE	나이키	-2.2%	신임 CFO로 화이자 CFO 데이비드 덴튼을 8월 17일부로 선임한다 발표. 시장에서는 새로운 경영진 합류를 통한 전략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, 임원의 동종 업계 경험 부재에 따른 러닝 커브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시각 존재